

집착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김 은 희[†] 윤 호 균

가톨릭대학교

본 연구는 윤호균(2001)의 집착(執着)에 대한 정의를 근간으로 집착의 정도를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집착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과정 즉, 집착척도의 개발 과정과 타당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집착척도는 연구자가 윤호균의 이론을 바탕으로 제작한 척도로서, 세 가지 구성개념 즉, 현재성의 결여(대 현재성), 경직성(대 유연성), 의존성(대 자율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구성개념 당 9문항씩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집착척도의 내적합치도는 .86이었으며, 세 개의 구성개념 즉 현재성의 결여, 경직성, 의존성의 내적합치도는 각각 .85, .84, .82이었다. 또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5이었으며, 세 개의 구성개념 각각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0, .74, .83이었다. 집착척도의 타당화 결과, 전체 집착척도와 아이젠크 성격검사 중 신경증적 경향성과의 상관은 .5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세 개의 구성개념별로 타당화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성의 결여와 걱정증상 질문지가 .57, 경직성과 자율성 척도는 .22, 의존성과 사회향성 척도는 .55로 각각의 구성개념과 척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집착(執着), 현재성의 결여, 경직성, 의존성

심리상담은 인간의 실존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교 역시 사람이면 누구나 겪게 되는 삶과 죽음,
을 해결하려는 하나의 시도이다(윤호균, 1999). 불 질병과 노화라는 인간 실존의 문제 의식으로부터

김은희와 윤호균은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에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 : 김 은 희, (420-74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 2동 산 43-1,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 011-9017-9263 E-mail : warmth@daum.net

출발하여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의 실천적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피로움의 정체와 피로움을 겪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러한 피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 이는 모든 심리상담 이론들이 근본적으로 찾고자 추구하는 물음인 동시에 분다가 출가를 결심하며 해결하고자 했던 의문이기도 하다.

불교의 궁극적 목표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 할 때, 이는 심리상담의 궁극적 목표와 그 맥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교에서 피로움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집착’이란 현상의 내용구조를 밝히고, 그러한 집착의 정도를 양적으로 측정하여 보여줄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불교에서 ‘집착’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모든 피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되며 그 집착을 떠날 수 있는 것을 바로 피로움의 소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이란 탐욕(貪)과 노여움(瞋), 어리석음(癡)에 대한 집착이 소멸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집착’이라는 것은 인간을 삶의 고해(苦海)에 빠지게 하는 핵심적인 결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집착이 곧 피로움의 원인이요, 집착을 떠날 수 있음이 곧 피로움의 벗어남인 것이다.

윤호균(1999)은 어떤 현상이나 존재를 전혀 변하지 않고 늘 같은 모습이라고 보는 것은 ‘생각의 고정성’을 반영한 것일 뿐 ‘사실’의 반영이 아니라고 말한다. 아무리 괴롭더라도 그것은 한순간의 흘러가는 피로움일 뿐이며, 아무리 즐겁더라도 그것 역시 한순간의 흘러가는 즐거움일 뿐임을 안다면, 삶은 좀 덜 괴롭고 좀 더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심리적인 문제를 아상(我相) 또는 아집(我執)과 관련하여 보고 있으며, 자신과 세계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은 공상일 뿐이

며 그러한 공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한 피로움은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피로움의 핵심에 자리하는 것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나’ 라고 하는 존재와 그 나의 바람·두려움으로 인한 집착이며, 피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이와 같은 집착을 끊고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집착은 있는 그대로 보고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진 장애인 것이다.

이와 같은 불교적 입장을 바탕으로 윤호균(1999)은 경험의 세계가 항상 바뀔 수 있고 자유로운 것임에도 그것을 고정불변하며 실체가 있는 것으로 여겨 마음이 거기에 묶여 집착하게 될 때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는 모든 심리적 문제의 원인을 ‘집착의 문제’로 바라본 것이라 할 수 있다.

윤호균(2001)은 집착을 “과거의 경험이나 기존의 관념·기억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나 사물 또는 사건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특정한 방향으로 지각하거나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의도하도록 조건화된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즉 집착된 상태란, 마음이 특정한 지각·생각·감정·욕구에 묶여 있어서 상황에 따라 자유롭고 융통성 있게 흐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 집착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유기체적 경험을 있는 그대로 지각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중심적이고 방어적인 방식으로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유기체적 경험과의 괴리와 부조화에 따른 불안, 갈등 또는 긴장을 느끼게 되고 말이나 행동 혹은 신체적인 반응이 부적절하게 된다고 한다(윤호균, 1999).

이렇게 마음이 묶이게 되면 적응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윤호균(2001)은 심리적 문제를 자기존재나 바람 또는 두려움에 대한 집착 때문에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경험하지 못하고

왜곡시켜 해석한 현실을 마치 진정한 현상인양 착각하고 그에 따라 반응함으로써 생겨난다고 보았다. 곧 심리적 문제의 핵심은 집착 그 자체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집착의 현상(특성)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본 연구자는 척도 개발을 위해 윤호균이 그동안 쓴 글(1982a, 1982b, 1991, 1999, 2001)과 불교 관련 서적들, 그리고 집착에 관한 에세이 및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집착의 현상(특성)을 수집하였다. 이러한 자료의 수집을 통해 연구자는 집착의 현상(특성)을 현재성의 결여, 의존성, 경직성, 양분성, 단편성의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성의 결여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과거의 기억, 관념, 감정,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 등에 맞추어 평가·해석하고 경험하는 것. 그리고 현재 만나는 사람이나 하고있는 일에 대하여 과거의 기억, 관념, 감정,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을 개입시켜 회피하거나 왜곡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의존성은 당면한 과제에 대한 결정이나 처리 등을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취사선택하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지하여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경직성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나 당면한 과제에 대해 시간·상황적 고려 없이 기존의 조건화된 시각이나 입장에서만 접근하고 처리하려고 고집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양분성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 또는 사건을 다차원적 관련성의 고려 없이 단일 차원에서만 판단·변별하여 지각하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단편성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 또는 사

건에 대해 매우 협소하고 단편적인 자극에 매여 축소된 조망으로 지각,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1 : 집착척도의 개발

연구자는 집착척도의 예비문항을 세 가지 과정을 거쳐 개발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정의한 집착의 이론적 구성개념 5가지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문항을 개발하였다. 둘째, 심리학과 대학원생 28명을 대상으로 ‘집착경험’ 즉, 집착했던 대상과 사건 그리고 그것에 집착하고 있을 때의 생각이나 느낌 혹은 행동 등에 관련한 에세이를 수집했다. 셋째, 심리학과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스터디 그룹 2곳의 학생들로부터 집착과 집착관련 경험에 대한 토의자료를 수집했다. 연구자는 위의 세 가지 과정을 통해, 최종 문항수의 1.5배 이상(한국심리학회, 1998)인 총 71개의 집착척도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자는 총 71개의 예비문항이 본 연구에서 기술한 집착의 정의 및 구성개념 각각에 얼마나 적절한지를 평정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정의한 집착에 대해 사전 지식이 있는 8명의 평정자에게 문항의 적절성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총 71개의 문항 각각에 대해 ‘매우 적절하지 않다’에서 ‘매우 적절하다’까지 5점 척도 상에 문항의 적절성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문항적절성 평정 작업에 참여한 8명은 각각 상담심리전문가 2명, 상담심리사 4명, 상담전공대학원생 2명 이었다. 연구자는 문항적절성 평정 결과를 바탕으로 5점 척도 상에서 평균 3점 미만의 문항을 제외시키고, 평정자들이 추천한 문항들을 첨가·수정하여 총 69개의 집착척도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마지막으로 집착척도 예비문항으로 선정된 69개의 문항들을 이룬 전문가에게 문항의 적절성에 대한 최종 검토를 받은 후, 측정 전문가에게 문항제작에 관한 점검을 받는 과정을 실시하였다(박광배, 2001).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총 69개의 예비문항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방 법

피험자

연구 1의 대상은 서울·수도권 및 지방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412명(남자: 128명, 여자: 277명, 무기명: 7명) 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0세, 범위는 19~41세였다.

도 구

연구 1에서는 연구자가 개발한 총 69문항의 집착척도 예비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에서 응답자들은 각 문항 진술문에 동의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였다. 집착척도 예비문항에는 7개의 역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예비설문 작성 시 [I타입]과 [II타입]의 두 종류를 작성하였다. [II타입]은 [I타입]과 정반대의 순서로 문항을 배치하여 작성하였다.

절 차

연구자는 집착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집단으로 실시하였다. 질문지에 반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분 이었다.

분석방법

집착척도 예비문항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최종 집착척도 문항을 추출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문항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집착척도 예비문항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41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착점수에 기초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방식을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하고, 추출된 요인들에 대해 Scree 검사를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Kaiser 기준(Eigenvalue > 1.0)을 충족하는 요인은 18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Scree 검사로 요인수를 파악하면 연구자가 집착의 구성개념을 5개로 잡은 것처럼, 5개의 주요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5개의 주요요인은 전체변량의 35%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요인의 수를 5개로 정하여 추출된 요인을 Varimax 회전한 결과, 현재성의 결여와 의존성에 속하는 문항들은 일관되게 한 요인으로 묶였으나, 경직성·양극성·단편성에 속하는 문항들은 각각의 요인으로 구분되어 묶여지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각각 독립적으로 묶이지 않는 3개의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 즉, 경직성·양극성·단편성에 속하는 문항들을 검토하였다. 검토 과정을 마친 후, 연구자는 경직성·양극성·단편성을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하여 경직성이라 명명하고, 집착척도의 하위 구성개념의 수를 총 3개로 결정하였다.

연구 1은 집착척도를 구성하게 될 최종 본 문항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이므로, 요인분석 결과

를 바탕으로 문항분석 과정을 거쳐 본 척도의 문항 추출 작업을 실시하였다(성태제, 1998). 적절하지 않은 문항을 제거시키고 본 문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였다. 첫째, 전체 69문항의 문항-총점 상관에서 .30이상인 문항을 선정하였다. 둘째, 각 요인(현재성의 결여, 경직성, 의존성)에 속하는 문항과 그 문항이 속한 요인의 총점간의 상관이 .30이상인 문항을 선정하였다. 셋째,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의 수를 맞추기 위해, 가장 최소한의 개수가 묶이는 요인을 기준으로 하여 문항의 수를 일정하게 하였다.

그 결과 현재성의 결여 문항 9개(.30 이상), 경직성 문항 9개(.40 이상), 의존성 문항 9개(.40 이상)로 총 27문항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3개의 요인들을 Direct oblimin 방식으로 회전시킨 결과가 표 1에, 그리고 연구 1의 결과 나타난 집착의 구성개념 3가지와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내용들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문항분석 이후 3개의 요인은 전체 변량의 4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변량 중 22%를 설명하는 요인 1은 ‘현재성의 결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나 일에 몰두하지 못하고 과거의 기억이나 감정 혹은 미래의 불안에 매여 지금·여기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요인 2는 ‘경직성’으로 전체변량 중 1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 또는 사건에 대해 단편적이고 비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시간과 상황에 따른 유연성이나 탄력성 없이 사람이나 사건 등을 일단 판단·결정하고 난 후에는 이를 계속 고집하는 것이다. 요인 3은 전체변량의 7%를 설명하고 있는 ‘의존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면한 과제에 대한 결정이나 처리 등을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처리하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의미있는 타인에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표 1. 집착척도의 요인별 부하량과 Cronbach-alpha

구성개념	문항 번호	요인 1	요인 2	요인 3	Cronbach-alpha
현재성의 결여 (9문항)	36	.905			0.80**
	01	.779			
	69	.738			
	21	.617			
	31	.450			
	67	.378			
	06	.363			
	41	.301			
	65	.265			
경직성 (9문항)	18		-.739		0.88**
	03		-.726		
	35		-.713		
	09		-.687		
	43		-.670		
	04		-.657		
	19		-.636		
	39		-.632		
	29		-.433		
의존성 (9문항)	17			.808	0.83**
	32			.775	
	66			.644	
	02			.631	
	68			.534	
	52			.518	
	07			.465	
	47			.460	
	27			.371	
부하자승합		5.99	3.00	1.75	
설명변량 비율(%)		22.09	11.10	6.58	

주. 로딩 값은 .25이상인 것만 제시되었음

표 2. 집착의 구성개념 및 최종 선정된 문항내용

요인 명(구성개념)	문항 내용
현재성의 결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잊고 싶지만 자꾸 떠오르는 과거 기억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 2. 과거의 괴로운 생각이 지금도 나를 괴롭힌다. 3. 잊고 싶은 과거 기억 때문에 지금의 기분이 좌우된다. 4. 지금 하는 일에 열중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기억이 자꾸만 떠오른다. 5. 나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를 많이 한다. 6. 현재 내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로 과거 경험이나 기억이다. 7. 예전의 나쁜 기억 때문에 지금도 불편한 사람이 있다. 8. 지금 해야 할 과제에 몰두하기가 어렵다. 9. 결과에 대한 걱정 때문에 과제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다.
경직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든 계속 밍게 보인다. 2. 한 번 미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말해도 계속 밍게 보인다. 3. 싫은 사람의 행동은 모두 싫게 보인다. 4.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도 여전히 싫다. 5. 싫은 사람은 너무 싫고 좋은 사람은 너무 좋다. 6. 나는 좋은 사람과 싫은 사람을 분명히 구분한다. 7. 나는 싫은 사람은 상대하지 않는다. 8. 싫은 사람을 대할 때와 좋은 사람을 대할 때의 나의 태도는 정반대이다. 9. 나는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편이다.
의존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 일을 내 스스로 결정해나가기 보다 주위 사람들의 권유에 따른다. 2. 일을 할 때 남의 의견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3. 무엇을 평가할 때 내 의견보다 나에게 중요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우선시한다. 4. 내 판단보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판단에 지나치게 좌우된다. 5. 다른 사람들이 반대의견을 얘기하면 내 결정을 바꾼다. 6. 진로를 결정할 때 부모님이나 친구의 권유에 따른다. 7.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을 많이 쓴다. 8. 누군가 나의 일을 대신 결정해 주었으면 하고 바란다. 9. 사람들의 동의나 인정이 없이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논 의

연구 1의 결과 연구자가 집착의 구성개념을 5개로 잡은 것처럼, 5개의 주요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요인의 수를 5개로

정하여 추출된 요인을 Varimax 회전한 결과, 현재성의 결여와 의존성에 속하는 문항들은 일관되게 한 요인으로 묶였으나, 경직성·양극성·단편성에 속하는 문항들은 각각의 요인으로 구분되어 묶여지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연구자

는 경직성·양극성·단편성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을 검토한 후, 세 요인을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하여 경직성이라 명명하고, 집착척도의 하위구성개념의 수를 총 3개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결정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처음 가정한 집착의 5가지 현상 즉, 구성개념이 선행연구 없이 이론만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설정한 것이므로 실제 조사에서는 충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연구 1에서의 문항들이 이론 주도적으로 개발된 척도 문항들이므로 이것이 실제 피험자들에게는 이론적 의도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통합 요인인 셋째 근거는, 경직·양분·단편성이 각각으로 나뉘어 설명되기는 했으나 이론적으로도 명확히 구별되기 힘든 공통요소가 많다는 점이다. 세 현상은 모두 경직된 사고나 판단 등에 매여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측면들을 기술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아주 세부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실제 문항으로도 구분되어질 만큼의 차이는 아니라는 점과, 그 차이보다 세 현상간의 공통점이 더 크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경직·양분·단편성을 ‘유연성’과 반대되는 개념인 ‘경직성’이라는 하나의 구성개념으로 기술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여겨 통합하게 되었다. 연구 1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정리된 집착의 현상 즉, 구성개념을 반대개념과 함께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성의 결여 — 현재성

현재성의 결여

현재성의 결여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과거의 기억, 관념, 감정,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 등에 맞추어 평가·해석하고 경험하는 것. 그리

고 현재 만나는 사람이나 하고있는 일에 대하여 과거의 기억, 관념, 감정,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을 개입시켜 회피하거나 왜곡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성

현재성은 지금-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보이고 들리고 생각나고 느껴지는 모든 현상들)을 신선하고 열린 자세로 있는 그대로 경험(지각, 사고, 감정)하는 것. 그리고 현재 당면한 사람 혹은 일에 온 몸과 마음으로 몰두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직성 — 유연성

경직성

경직성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 또는 사건에 대해 시간·상황적 고려 없이 기존의 조건화된 매우 단편적이고 일차원적인 시각이나 입장에서만 접근하고 처리하려고 고집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연성

유연성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 또는 사건에 대해 다차원적이며 전체적인 열린 조망으로 시간·상황에 따라 다양한 시각이나 입장에서 접근함으로써 탄력적·창조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존성 — 자율성

의존성

의존성은 당면한 과제에 대한 결정이나 처리 등을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취사선택하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지하여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성

자율성은 지금-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당면한 과제에 대해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결정하고 처리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2 : 집착척도의 타당화

연구 1의 결과에서 나타난 집착척도 27문항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 2를 실시하였다.

방 법

피험자

연구 2의 대상은 서울·수도권 및 지방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344명(남자: 148명, 여자: 191명, 무기명: 5명) 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1세, 범위는 18~31세였다.

도 구

집착척도:

본 연구자가 윤호균의 이론을 바탕으로 제작한 척도로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3개의 구성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 개의 구성개념의 내용은 각각 현재성의 결여, 경직성, 의존성이며 한 구성개념 당 9문항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질문지에서 응답자들은 각 문항 진술문에 동의하는 정도를 5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집착의 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펜실베이니아 걱정증상 질문지

이 검사는 범불안장애의 주증상인 만성적이며 통제불가능한 걱정의 빈도 및 강도를 평가하는 자기보고형 검사로서 Meyer, Miller, Metzger 및 Borkovec(1990)가 개발하였다. 이 검사는 16개 문항을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총점의 범위는 16~80점 사이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걱정이 많음을 의미한다. 이 검사의 내적합치도는 .91,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5로 보고되고 있다.

사회향성-자율성 척도

Beck, Einstein, Herrison 및 Emery(1983)가 개발한 60문항의 자기보고형 검사도구이다. 사회향성을 측정하는 30문항과 자율성을 측정하는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개 문항 별로 각 진술내용이 자신에게 얼마나 해당되는지를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게 된다. Beck, Einstein, Herrison 및 Emery(1983)의 원판에서 내적합치도는 사회향성 척도가 .90 이었고, 자율성 척도는 .83 이었다.

한국판 아이젠크 성격검사(성인용)

이 검사는 Eysenck Personality Scale(Eysenck & Eysenck, 1991)을 이현수(1997)가 한국 상황에 맞게 표준화한 것이다. 이 검사는 여러 하위척도들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신경증적 경향성을 측정하는 하위척도(26문항)를 사용하였다. 각 척도에서 응답자들은 제시된 진술문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게 되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정반응 개수를 더한 것이 해당 하위척도의 총점이 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성격 특질이 더 많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현수(1997)는 신경증적 경향성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88, 내적합치도를 .84로 보고하였다.

절 차

연구자는 집착척도, 펜실베니아 걱정증상 질문지, 사회향성-자율성 척도, 그리고 한국판 아이젠크 성격검사(성인용) 중 신경증적 경향성 척도를 책자로 묶어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집단으로 실시하였다. 질문지를 완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분 이었다.

분석방법

최종 집착척도 문항들의 요인구조와 문항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문항분석을 실시하고 집착척도의 내적합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구하였다. 또한 집착척도 요인들의 의미와 전반적인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성의 결여는 펜실베니아 걱정증상 질문지와, 경직성은 자율성 척도와, 그리고 의존성은 사회향성 척도와의 상관을 각각 구하였다. 또한 전체 집착척도와 전반적 정신건강의 지표로 볼 수 있는 아이젠크 성격검사의 신경증적 경향성 척도와의 상관을 구하였다.

결 과

집착척도 문항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344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착점수에 기초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방식을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하고, Direct oblimin 방식으로 회전시킨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3개 요인은 전체 변량의 4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의 결과 현재성의 결여에 해당하는 문항 중 2개가 경직성에 포함되어 나타났다. 연구 1에

표 3. 집착척도의 요인별 부하량

구성개념	문항번호	요인 1	요인 2	요인 3
	06	.836		
	03	.827		
	09	.804		
현재성의 결여	12	.732		
(9문항)	21	.480		
	18	.473		
	27	.401		
	15	.271		
	24	.183		
	10		.825	
	07		.798	
	04		.793	
경직성	01		.712	
(9문항)	13		.558	
	16		.536	
	19		.407	
	22		.369	
	25		.335	
	02			.842
	05			.773
	08			.676
의존성	11			.595
(9문항)	17			.579
	14			.543
	23			.539
	20			.367
	26			.310
부하자승합		5.27	3.50	2.18
설명변량 비율(%)		19.51	12.97	8.08

서 현재성의 결여 문항으로 선정되었으나 연구 2에서 경직성으로 묶인 두 문항은 15번과 24번으로 내용은 각각 ‘나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를 많이 한다’, ‘지금 해야 할 과제에 몰두하기

가 어렵다'이었다. 비록 두 문항이 연구 1의 결과와는 다르게 묶였으나, 연구 2에서도 두 문항을 현재성의 결여 문항으로 간주하여 이후의 결과들을 산출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 근거는 첫째 두 문항이 경직성으로 묶이긴 했으나 현재성의 결여에서

도 적지 않은 설명변량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둘째 연구 1에서 두 문항이 현재성의 결여 요인에 높은 설명변량으로 묶였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항의 내용상 현재성의 결여 요인에 더 적절해 보인다는 점 등 이었다. 이에 더불어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102명의 피험

표 4. 집착척도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구성개념	문항 내용	평균	표준편차
현재성의 결여	1. 잊고 싶지만 자주 떠오르는 과거 기억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	3.04	1.06
	2. 과거의 괴로운 생각이 지금도 나를 괴롭힌다.	2.80	1.05
	3. 잊고 싶은 과거 기억 때문에 지금의 기분이 좌우된다.	2.73	1.03
	4. 지금 하는 일에 열중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기억이 자꾸만 떠오른다.	2.70	1.02
	5. 나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를 많이 한다.	3.31	.96
	6. 현재 내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로 과거 경험이나 기억이다.	2.79	.94
	7. 예전의 나쁜 기억 때문에 지금도 불편한 사람이 있다.	3.47	.93
	8. 지금 해야 할 과제에 몰두하기가 어렵다.	2.72	.92
	9. 결과에 대한 걱정 때문에 과제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다.	3.05	1.04
경직성	1. 미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든 계속 밍게 보인다.	3.50	.98
	2. 한 번 미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말해도 계속 밍게 보인다.	3.20	.99
	3. 싫은 사람의 행동은 모두 싫게 보인다.	3.38	.98
	4.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도 여전히 싫다.	3.18	1.00
	5. 싫은 사람은 너무 싫고 좋은 사람은 너무 좋다.	2.93	1.02
	6. 나는 좋은 사람과 싫은 사람을 분명히 구분한다.	3.20	.96
	7. 나는 싫은 사람은 상대하지 않는다.	3.00	1.00
	8. 싫은 사람을 대할 때와 좋은 사람을 대할 때의 나의 태도는 정반대이다.	3.00	1.02
	9. 나는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편이다.	2.56	.90
의존성	1. 내 일을 내 스스로 결정해나가기 보다 주위 사람들의 권유에 따른다.	2.80	.86
	2. 일을 할 때 남의 의견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3.10	.82
	3. 무엇을 평가할 때 내 의견보다 나에게 중요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우선시한다.	2.84	.88
	4. 내 판단보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판단에 지나치게 좌우된다.	2.76	.92
	5. 다른 사람들이 반대의견을 얘기하면 내 결정을 바꾼다.	2.78	.86
	6. 진로를 결정할 때 부모님이나 친구의 권유에 따른다.	2.77	.80
	7.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을 많이 쓴다.	3.34	1.01
	8. 누군가 나의 일을 대신 결정해 주었으면 하고 바란다.	2.63	1.02
	9. 사람들의 동의나 인정이 없이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2.86	1.01

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요인분석을 한 결과, 3개의 요인이 각각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묶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중요한 결정 근거 한 가지는 요인추출이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방식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3요인 모형에 대한 모형-자료의 부합도(Goodness-of-fit)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3요인 모형의 카이제곱값은 646.427이었고, 이 카이제곱값은 모형자유도 273에서 유의미하였다($\chi^2(273, N=344)=646.427, p < .01$). 따라서 모형-자료의 부합도는 매우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카이제곱값이 자유도의 2.36 배에 해당하므로 수용가능한 부합도를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연구 결과 나타난 집착척도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집착척도의 3가지 구성개념 간 상관성이 제시된 표 5의 상관행렬을 보면, 현재성의 결여와 경직성, 현재성의 결여와 의존성은 각각 .20과 .44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직성과 의존성간의 상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연구 2의 결과 나타난 집착척도의 내적합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표 6과 같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경기도 소재 한 대학의 학생들에게 1차 검사 실시 3주 후에 2차 검사를 실시하여 산출했으며, 1차와 2차 검사 모두에 참여한 학생들의 질문지만을 자료로 사용하였다. 설문 대상 피험자는 102명(남자: 42명, 여자: 60명) 이었고 이들의 평균연령은 21세, 범위는 19~27세였다.

다음은 집착척도의 타당화 과정으로 우선, 집착척도 하위 구성개념과 다른 척도와의 상관성을 구한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집착척도 각 구성개념과 연구자가 정적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척도들간의 상관성은 모두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성의 결여는 걱정

표 5. 집착척도의 요인 간 상관

	현재성의 결여	경직성	의존성
현재성의 결여			
경직성	.20**		
의존성	.44**	.04	

주. ** $p < .01$ (2-tailed)

표 6. 집착척도의 신뢰도

요 인	문항수	내적 합치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1 (현재성의 결여)	9	.85**	.80**
2 (경직성)	9	.84**	.74**
3 (의존성)	9	.82**	.83**
전체 문항	27	.86**	.75**

표 7. 집착척도 하위 구성개념과 다른 척도와의 상관

	현재성의 결여	경직성	의존성
걱정증상 질문지	.57**	.11*	.29**
자율성 척도	.12*	.22**	-.30**
사회향성 척도	.48**	.19**	.55**

주. * $p < .05$ (2-tailed), ** $p < .01$ (2-tailed)

표 8. 집착척도와 다른 척도와의 상관

	집착척도
걱정증상 질문지	.47**
사회향성 척도	.55**
자율성 척도	.03
신경증적 경향성 척도	.54**

주. ** $p < .01$ (2-tailed)

증상 질문지와, 경직성은 자율성 척도와, 마지막 의존성은 사회향성 척도와 정적 상관성이 있었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자는 집착척도와 전반적인 정신 건강 사이에 정적 상관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집착척도와 신경증적 경향성 척도 사이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 연구자의 예상대로 집착척도와 신경증적 경향성 척도 간의 상관관은 정적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집착이 많을수록 신경증적 경향성을 보일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으로, 집착척도가 정신건강의 한 지표로써 의미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논 의

집착척도 27문항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신뢰도 및 타당도를 산출하기 위해 이루어진 연구 2의 결과, 집착의 구성개념 세 가지는 전체 변량의 4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착척도의 내적합치도는 .86,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5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집착척도 하위 구성개념과 다른 척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첫째, 현재성의 결여와 걱정증상 간의 상관관은 정적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현재성의 결여와 걱정증상 모두 지금-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나 과제에 몰입하지 못하고 과거 혹은 미래 등에 매여 현재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경직성과 자율성간의 상관도 정적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이미 고정된 시각이나 판단 혹은 자기중심적인 결정 등을 상황이나 시간에 대한 고려 없이 고수하려 고집함으로써 독단적이거나 비융통적일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의존성과 사회향성 간의 상관 또한 정적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모두가 타인에게 지나치게 매여있어 자율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연구자는 집착척도와 전반적인 정신 건강 사이에 정적 상관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종합논의

본 연구에서는 집착(執着)을 ‘과거의 경험이나 기존의 관념·기억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나 사물 또는 사건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특정한 방향으로 지각하거나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의도하도록 조건화된 상태’ 라고 정의하였다(윤호균, 2001). 이러한 윤호균의 정의를 근간으로 연구자는 집착의 정도를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집착의 현상 즉, 구성개념을 현재성의 결여, 의존성, 경직성, 양극성, 단편성 다섯 가지로 정리한 후, 이 구성개념을 바탕으로 크게 두 가지의 연구 과정을 거쳤다.

첫째, 연구 1은 집착척도의 개발과정으로써, 여러 단계를 거쳐 집착의 구성개념 5가지에 해당하는 총 71문항의 집착척도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문항을 평정·검토한 후 최종 69개의 예비문항을 41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처음 연구자가 집착의 구성개념을 현재성의 결여, 의존성, 경직성, 양극성, 단편성의 5가지로 정리한 것과는 달리, 집착의 구성개념은 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분석을 통해 연구자는 경직성, 양극성, 단편성을 ‘경직성’ 이라는 하나의 구성개념으로 통합하여 모두 3개를 집착의 구성개념으로 최종 정리한 후, 문항분석 과정을 거쳐 27문항의 집착척도 문항을 선정

하였다.

둘째, 연구 2는 최종적으로 선정된 집착척도 27문항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신뢰도 및 타당도를 구하는 과정이었다. 연구 2의 결과 집착척도의 내적합치도는 .86 이었으며, 세 개의 구성개념 각각의 내적합치도는 현재성의 결여가 .85, 경직성이 .84, 의존성이 .8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착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5 이었으며, 각 구성개념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현재성의 결여가 .80, 경직성이 .74, 의존성이 .83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집착척도의 타당화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집착척도와 신경증적 경향성 척도와의 .54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구성개념들의 타당화 결과, 현재성의 결여와 걱정증상 질문지는 .57, 경직성과 자율성 척도는 .22, 의존성과 사회향성 척도는 .55로 각각들 간의 상관관계가 정적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요약하자면, 윤호균의 집착에 대한 정의를 근간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집착척도는 한 개인의 집착 경향성을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써, 만족할만한 신뢰도 및 타당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집착척도가 상담장면에서 유용한 측정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집착과 관련한 연구들이 전무한 상태였으므로, 집착의 정의나 구성개념이 지나치게 이론가와 연구자의 생각에만 치중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집착척도는 본 연구에서 집착의 구성개념으로 잡은 세 특성만을 반영할 뿐이며, 이것이 한 개인의 집착 경향성을 충분히 반영하는가에는 한계가 있

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처음 연구자는 집착의 구성개념을 5개로 잡았으나 연구 결과는 집착의 구성개념이 3개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척도 개발을 위해 이론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결함이 있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집착의 대상에 관한 문제를 들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최종 집착척도에 선정된 문항들은 주로 '나'와 '타인'에 관련된 문항들이었다. 이는 집착척도의 측정 대상이 주로 '사람'에 국한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한 개인의 전반적인 집착 경향성을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들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집착의 현상을 좀 더 실증적이고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 개인의 '집착 경향성'을 반영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탐구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제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집착척도는 상담장면에서 내담자 문제의 심각성 및 상담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간의 문제 혹은 내담자의 문제를 '집착'에서 이해하는 연구를 촉발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익진 편역 (1998). 아함경.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 김정원, 민병배 (1998). 걱정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및 문제해결방식과의 관계. 한

- 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 심리학회.
- 루네 E. A. 요한슨 (1996). 불교심리학. 서울: 시공사.
- 불교성전편찬위원회 (1972). 불교성전. 서울: 동국역경원.
- 박광배 (2001). 심리척도개발과정. 미발행.
- 박성희 (1999). 동양의 마음과 상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2), 261-280.
- 성태제 (1998). 문항제작 및 분석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영남불교대학 교재편찬회 편저 (1999). 육조단경. 대구: 좋은인연.
- 육조혜능선사 술·학담 해의 (2000). 육조법보단경. 서울: 큰수레.
- 윤호균 (1982a). 정신분석, 인간중심의 상담 및 불교의 비교 I: 인간 및 심리적 문제에 관한 견해. 임상심리학회, 3, 35-47.
- 윤호균 (1982b). 정신분석, 인간중심의 상담 및 불교의 비교 II: 심리적 문제의 해결. 임상심리학회, 3, 49-63.
- 윤호균 (1991). 정신치료와 수도: 정신분석과 선을 중심으로. 소암 이동식선생 고회기념논문집.
- 윤호균 (1999). 불교의 연기론과 상담. 최상진, 윤호균, 한덕웅, 조공호, 이수원(저), 동양심리학(pp. 327-375). 서울: 지식산업사.
- 윤호균 (2001). 공상, 집착 그리고 상담.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심리학회, pp. 513-518. 10월 20일. 서울: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 이중표 (1996). 불교의 이해와 실천1·2. 서울: 대원정사.
- 이현수 (1997). 한국판 아이젠크 성격검사 실시요강. 서울: 학지사.
- 조성호 (1999). 한국판 방어유형질문지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2), 115-137.
- 조옥귀 (1993). 우울취약성과 우울수준, 성격차원 및 부정적 생활 스트레스와의 관계.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국심리학회 (1998). 심리검사 제작 및 사용 지침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Beck, A. T., Epstein, N., Harrison, R. P., & Emery, G. (1983). *Development of the Sociotropy-Autonomy Scale: A Measure of personality factors in psychopathology*.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 Epstein, M. (1995). *Thoughts without thinker*. New York: Basic Book.
- Eysenck, H. J., & Eysenck, S. B. G. (1991). *Manual for the Eysenck Personality Scales*. London: Holler & Stoughton.
- Meyer, T. J., Miller, M. L., Metzger, R. L., & Borkovec, T. D. (199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8, 487-495.
- Rogers, C. R. (1961). *On becoming a person*. Boston: Houghton Mifflin.
- Rubin, J. B. (1996). *Psychotherapy and buddism*. New York: Plenum.

원고접수일 : 2002. 3. 11
수정원고접수일 : 2002. 5. 31
게재결정일 : 2002. 6. 14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Jibchak Scale

Eunhee Kim Hokyun Yu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develop a scale to quantitatively measure the degree of *Jibchak* based on the definition of *Jibchak* by Yun, Hokyun(2001). This study took the two steps. This *Jibchak* Scale consisted of three different constructs, namely, lack of nowness(vs. nowness), rigidity(vs. flexibility) and dependency(vs. autonomy). The questionnaire for the *Jibchak* Scale consisted of 27 items, 9 items for each construct. Cronbach- α of the *Jibchak* Scale was .86 and each Cronbach- α of three constructs was .85 for lack of nowness, .84 for rigidity and .82 for dependency. Test-retest reliability was .75 and each test-retest reliability of three constructs was .80 for lack of nowness, .74 for rigidity and .83 for dependency. To validate the scale, I examin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Jibchak* Scale and 4 established scales, relevant to the *Jibchak* Scal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Jibchak* Scale and the neuroticism component of the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EPQ) was .54,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validity of each construct was .57 between lack of nowness and the 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PSWQ), .22 between rigidity and the autonomy scale, and .55 between dependency and the sociotropy scale, and it showed that they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to each other.

Key Words : *Jibchak*, *Lack of nowness*, *Rigidity*, *Dependency*